

# 주인공은 안 보이고, LED 무대만 화면 가득?



매년 연말 가요계를 결산하는 시상과 방송사들의 '가요대전'이 올해도 막을 올렸다. 25일 첫 주자 2017 SBS 가요대전(아래 '가요대전')이 방송됐다. SBS는 매년 'SAF: SBS 어워즈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가요대전 연예대상-연기대상을 연계해 여러 행사와 함께 진행했지만,

올해는 이를 없애고 각 프로그램에 만 전념하는 모습이다. 이번 가요대전도 일부 달라졌다. 지난 3년간 공연장으로 사용된 서울 코엑스 대신 고척돔으로 자리를 옮겼다. 자정 넘어 끝나기 일췌했던 방송시간도 상당히 앞당겨 간결하게 마무리 지었다. 아이돌 가수를 좋아

하는 10대 방청객이 많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바람직한 변화로 여길 만하다.

### ▲ 화려한 무대와 세트, 초라한 화면-음향

가요대전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 SBS '가요대전' 음향·연출은 아쉬워 가수들의 퍼포먼스·진행 등은 합격점

것은 화려한 무대였다. 특히 무대 뒤편과 바닥을 모두 채운 고화질 LED 대형 화면이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주객이 전도' 되는 상황은 아쉬웠다. 가요대전의 주인공은 가수들이지만, 이날 카메라는 가수들의 퍼포먼스 대신 LED 화면과 고척돔 내부 전경을 담느라 급급했다. '포인트 안무' 장면에서 갑자기 폴사를 잡는다거나 가수들의 뒷모습 장면도 불필요하리만치 많이 등장했다. 출연진의 얼굴 한 번 보기 힘들 만큼 불안정한 구도의 화면이 3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엄청난 비용이 투입된 무대를 강조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의도는 물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가요대전을 빛내는 가수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부분은 패착이었다.

### ▲ 이적, 엄정화 등이 보여준 고참의 품격

연말 가요 시상식 출연진 대부분을 아이돌 그룹으로 채운다는 지적은 몇 해 전부터 이어졌다. 비판을 피하기 위해 올해 가요대전에는 선배 가수들의 특별 무대가 준비됐다. 지난 14일 새 앨범 '흔적 Part 1'을 발표한 가수 이적은 신곡 '나침반' 무대와 함께 헤이즈와 듀엣으로 '날다'를 선보였다. 이적은 최근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였지만 흡인력 있는 가창력을 자랑했다. 관록의 디바 엄정화는 2년 연속 가요대전 무대에 올라 특유의 카리스마를 뽐냈다. 13일 발표한 신곡 '엔딩 크레디트'의 파격적인 퍼포먼스에 어려움을 겪는 장소가 뚝구멍이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일부 가수들의 음향은 심하게 답답한 느낌을 줬

다. 어설픈 화면과 음향이 SBS 가요대전의 '진통(?)'이 돼선 곤란하다. 이밖에 선배 가수곡 리메이크 컬래버레이션 등의 특별 무대 구성 역시 신선함과 거리가 멀었다.

지난해 최악의 음향 사고가 빚어진 데 반해 올해는 별 탈 없이 진행된 점은 작은 위안거리다. 그러나 양질의 소리를 들려준 건 결코 아니었다. 공연 전문가들조차 음향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 장소가 뚝구멍이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일부 가수들의 음향은 심하게 답답한 느낌을 줬

### ▲ 유희열-아이유의 무리 없는 진행, 방탄소년단 화려한 퍼포먼스 눈길

제작진에 대한 아쉬움은 여전히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맡은 가수 유희열과 아이유는 큰 탈 없이 3시간짜리 생방송 무대를 잘 이끌었다. 아이유는 '팔레트' 앨범 수록곡 '이 지금' 무대와 함께 고(故) 김현식의 명곡 '내 사랑 내 고향'을 멋지게 소화해, 가수로서도 시청자들의 귀를 즐겁게 했다.

올해 뜨거웠던 그룹 워너원 방탄소년단 엑소 등은 음향, 화면의 악조건 속에서도 화려한 볼거리의 퍼포먼스를 선사했다. 특히 수십 명의 백댄서들과 함께 역동적인 무대를 보여준 방탄소년단의 'No Today'는 이날 가요대전의 백미였다. 이번 가요대전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제작진의 부족함을 가수들의 힘으로 메웠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가요대전 1부 말미엔 지난 18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그룹 사이니 멤버 종현의 '하루의 끝'을 짧막하게 들려주며 그를 애도했다. 같은 소속사 엑소와 레드벨벳 등은 그를 추모하는 리본을 달고 가요대전에 참석해, 화려함과 즐거움 속에서도 그를 잊지 않았다.

## 현 시대 녹여낸 '이판사판', 현실감 살아 숨쉬다

드라마 '이판사판'이 사례들을 녹여낸 다양한 사건과 에피소드로 안방극장의 호응을 얻고 있다.

SBS 수목 드라마 '이판사판'(극본 서인 연출 이광영)은 현 세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을 적용해 현실감 넘치는 스토리 전개를 이어가며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스토리 전개가 극의 사실감을 높여주는 동시에 판사들의 인간적 고뇌와 애환까지 엿볼 수 있다.

### ◆ 실제 뜨거운 감자였던 반려견 목줄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다. 바로 목줄 없이 풀어 놓은 맹견에 물려 행인이 다치는 사건으로 인해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판사판'에서도 목줄 없이 산책하러 나온 핏볼테리어에게 물린 상해치사사건'을 다뤄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오지락(이문식)과 이정주(박은빈), 그리고 정채성(이창욱) 등 형사합의 7부 판사들은 합의하는 도중 나온 건으로 엄파와 초등학생 딸이 운동하러 나왔다가 목줄 없이 산책하러 나온 개에게 물린 상해치사사건을 언급했다. 정주는 물리기 이전에 이미 개가 아이를 향해 짖어왔고 아이가 무섭다고 피했었는데도 주인이 그냥 기만히 있었다는 사건 내용 설명했다. 이어 이정주는 "견주로서 내 개

는 몰지 않아요'라는 태도가 상당히 문제였습니다. 이 견주가 내 개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고 맹목적인 믿음만 버렸어도'라고 덧붙였다.

### ◆ 판사들의 고민, 장발장

사회적인 울타리 안에서 보호 받지 못한 이들은 어려운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이럴 경우 범죄에 대한 처벌과 선처를 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진다. '이판사판'은 이러한 판사들의 고민을 단순 절도죄로 3년 징역형을 선고 받은 62세 피고인의 특가절도로 다뤘다.

사외현(연우진)은 형사합의 7부로 배정받고 난 후 이정주, 오지락과 합의하며 양형을 고민에 빠졌다. 단순절도죄로 3년 징역형 실형을 선고 받고 형을 마친 62세 피고인이 나온 지 2달 만에 다시, 차에에 걸린 60세 아내와 어린 손자 2명에게 먹일 빵과 우유를 편의점에서 훔쳤기 때문이다.

누방기간에 물건을 훔쳐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풀어줄 수도 없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지만 모든 사항을 참작해도 집행유예는 안 되는 터라 세 명의 판사들의 고민이 가중됐다. 결국 법으로는 최소 징역 2년이지만 형법 53조에 따라 작량 감경, 최소 징역 1년 실행, 법을 어기지 않고 선처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합의했지만, 어려운 생활고로 인해 합어진 생계형 범죄를 대하는 인간적인 판사들의 모습이 시선을 모았다.

### ◆ 생계 유지 위한 어쩔 수 없는 범죄 행위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가족의 생계 수단이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뉴스에 나오기도 한다. 드라마 역시 이러한 상황에 판사들이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음을 드러냈다.

지난 20회에는 서대수(김민상)와 최고수(우현)이 생계 유지를 위해 화물 자동차를 모는 피고인의 양형을 고민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최고수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의 무면허 운전이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하면서도 "3년 사이에



가 있는 상태였다. 오지락은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딱한 사정에 벌금 쪽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서대는 전력이 있는데 또 다시 법을 위반한 사실에 실형을 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장이라는 점과 선처 받았음에도 또 다시 저지를 위법 사이에서 고민하는 판사들의 고뇌를 그려냈다.

제작진 측은 "이판사판"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들과 이슈들을 드라마 안에 녹여내면서 '판드'로서 구현할 수 있는 최대 한의 리얼함과 디테일을 살리고자 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장이고 어린 자년 2명과 전업주부인 부인, 거동이 불편한 노모

## '신과 함께'의 무서운 상승세, 연말 강자 증명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기준 '신과 함께'는 22일부터 24일 주말 기간 동안 272만 9940명을 동원하며 개봉 첫 주에 1위를 차지했다. 25일 크리스마스 당일만 해도 120만 여명을 더 불러모아 누적관객 수 478만 442명을 기록하며 50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스크린 수는 1909개.

하정우, 주지훈, 차태현, 김향기 등 신·구 배우의 조합이 돋보이는 SF 영화 '신과 함께-죄와 벌'(이하 '신과 함께')이 크리스마스 연휴 승자로 자리 잡았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기준 '신과 함께'는 22일부터 24일 주말 기간 동안 272만 9940명을 동원하며 개봉 첫 주에 1위를 차지했다. 25일 크리스마스 당일만 해도 120만 여명을 더 불러모아 누적관객 수 478만 442명을 기록하며 50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스크린 수는 1909개.

지난 14일 개봉해 1위로 출발한 북한 핵전쟁 소재의 '강철비'는 지난 주말 77만 9418명을 모으며 2위

를 차지했다. 성탄절엔 32만 8298명을 모아 '신과 함께' 보다는 약 세 배였던 2위를 수성했다. 누적 관객 수는 345만 967명, 스크린 수는 899개다.

후 쟁쟁 주연의 가족드라마 '위대한 소년'은 '신과 함께'와 같은 날인 20일 개봉하며 기세에 눌리는 듯 했으나 임소문을 터며 선전 중이다. 주말 간 '위대한 소년'은 30만 2874명을 모아 3위를 차지했고, 성탄절엔 15만 5679명을 모아 역시

3위를 지켰다. 누적관객 수는 54만 7996명, 스크린 수는 637개다. 4위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애니메이션 '극장판 포켓몬스터 너로 정했다!'가 차지했다. 21일 개봉한 해당 작품은 첫 주말에 18만 9020명을 모았고, 성탄절에 10만 442명을 더했다. 누적관객 수는 28만 9462명, 스크린 수는 610개다. 또 다른 해외 애니메이션 '몬스터 패밀리'도 21일 개봉해 주말 간 13만 4729명을 모으며 5위에 올랐다. 성탄절에 9만 2994명을 모은 해당 작품의 누적관객 수는 24만 4095명, 스크린 수는 616개다.

오늘의 순세 2017년 12월 27일 수요일 (음력 11월 10일)



▶**신년** 마음을 비우고 진실하게 대하라. 어느 가정이나 때로는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 부부간 불화가 생길수록 속마음을 대화로써 풀어갈 것. 부부는 서로 맞벌이를 하면 좋겠고 남쪽은 불이익이 따르니 조심.



▶**신년** 자신에게 불행이 닥치면 가족 전체가 힘들게 되니 힘들었던 과거를 한 번쯤 돌이켜 보면서 다시는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히 처신할 것. 3, 7, 9월생은 다 된 밥에 재를 뿌릴 수 있으니 말, 토끼, 용띠를 멀리할수록 마음이 편하다.



▶**신년** 자녀들에게 너무나 강압적으로 많이 요구하지 말 것. 부모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에게 기대하면 그것은 오산이다. 자녀의 인생길은 따로 있음을 알라. 2, 8, 11월생 주부는 내조의 힘이 크지만, 자만은 금물이다. 건강 관리에도 관심을 가지라.



▶**신년** 친한 사람과 이권 다툼으로 시비가 오려오니 언행에 조심하라. 라, 프, 췌 성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믿었던 사람이 믿음 그대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경계심으로 화를 초래할 수도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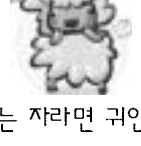
▶**신년**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약한 점을 이용해 부당하게 부탁할 것 같다. 그, 나, 승 성씨로 거절하는 것이 좋을 듯. 자신이 최고라는 자만심을 버리고 언행에 각별히 조심할 것. 구설수로 고심할 수.



▶**신년** 약한 점을 이용하여 친하게 다가와서 도움을 청하여 부탁에 응하면 큰 손해를 보겠으니 그, 나, 췌 성씨 특히 조심하고 남쪽 사람 경계하라. 서북간에 사업 시작은 길운. 10, 11, 12월생 남에게 자신의 결점을 보이지 않는 것이 손실이 적겠다.



▶**신년** 생각한 일이 늦어진다고 급하게 서둘지 마라. 산에서 물을 찾지 말고 계곡에서 물을 찾아라. 물소리가 들리는 남동쪽이 행운이며, 사, 췌 성씨가 마음을 풀어줄 것이다. 금융계에 투자가 좋다.



▶**신년** 계약 문제는 내년으로 미루면 좋겠고 한층 더 사랑이 싹트겠다. 부정행위의 애정이라면 파산될 것이니 빨리 정리하라. 그, 나, 오 성씨에게 행운이 올 듯. 본인에게 충고하는 자라면 귀인이라는 것을 염두하라.



▶**신년** 사랑하는 자를 짐승으로 대하라. 그 사람에게 멋진 지혜를 얻어 당신은 활력을 얻게 된다. 2, 8, 11월생 여성 귀인이 따르는 해다. 동쪽이 대길. 오늘 애정엔 공백이 생길 듯.



▶**신년** 자신 있는 일도 뒷사람의 조언이나 충고를 받아들여 내 것으로 만들라. 의욕이 커져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듯. 직장동료와의 불협화음은 마음의 문을 열면 청산되고 업무 능력도 오를 수 있겠다.



▶**신년** 권위주의를 버리고 과욕은 금물임을 알 때 뜻이 피고 나누는 열매를 맺듯 본인도 좋은 결실이 있게 될 듯. 그 결실의 때가 눈앞에 와 있으니 유념하라. 2, 4, 6월생 행운을 잡겠으나 동업은 피하라.



▶**신년** 재물이나 여성 문제로 망신 수가 있으니 침착하게 처신하라. 자신만만해 하다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길 것이다. 투기는 처음에는 기분이 좋으나 중반부터는 하락하니 명심할 것. 비, 사, 오 성씨는 오늘 하루 주의하라.